

여성불자상 후보 추천받아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9월 15일까지 '한국여성불자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후보자 자격은 불교포교활동 경력 20년 이상인 여성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주어진다. 사찰주지 스님이나 신행단체장이면 누구나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인은 추천서와 해당부분 활동 공적서, 주요 경력 및 이력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9월 20일에 하며 시상식은 10월 중순 경 개최될 <한국여성불교연합회 10년사> 발간 기념법회 때 열릴 예정이다. (02)738-5586

여수령 기자

'자비상담원회' 출범

불교계의 대표적 상담전화인 '자비의전화' 상담원들의 체계적·조직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인 '자비상담원회'가 조직됐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8월 30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비상담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으로 김영자 상담원을 선출했다. 또 10월 중 부회장과 각 부 부장을 선출하고 보살계 수계식과 더불어 정식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비상담원회'는 불교상담원들의 상담활동과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참여 등의 회원 대외 활동을 위한 불교상담원의 구성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10월 15일 올림픽공원서

제3회 한강행복문화축제

불교계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한강행복문화축제가 10월 15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축제는 오전 8시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결기선(禪)과 명상'으로 시작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불자 단체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저명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는 한일광장 및 88잔디마당에서 즉구, 피구, 발야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체육대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장기자랑도 펼쳐진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일광장에서는 불교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조직위원회(02-733-7277)로 접수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어떤 요구도 응대 안 해”

리움박물관, 조계종 항의 방문에 강경입장

“답변 없을땐 사리 친견법회·단식투쟁 계획”

불교계는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봉선사 주지 철안, 현등사 주지 조력,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 등 '현등사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탁연, 이하 추진위)' 관계자 5명은 9월 6일 삼성리움박물관을 항의 방문해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재

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피고 측인 삼성문화재단에 항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원고인 현등사는 물론 조계종단의 어떠한 항의나 요구에도 응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추진위는 “조계종 법통부정·장물문화재 비호하는 사법부의 각성”과 “삼성 문화재 사리 즉각 반환”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리움 박물관 측에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5가합9777) 1심 판결에서 원고인 현등사의 동일성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은 조계종의 법률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며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의 사리 또한 삼성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 가치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반환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의방문 후 조력 스님은 “리움박물관 측에 9월 9일까지 사리와 사리구 반환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리움박물관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앞으로 ‘현등사 사리 불자 친견법회’와 ‘단식투쟁’ 등의 강도 높은 항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현재 각 교구본사 입구에 ‘삼성은 현등사 사리를 반환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100만 불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9월 19일에는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소집해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9월 2-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포교사 정기 연수 및 팔관제계 수계법회에서 선배 포교사가 신규 포교사 가슴에 포교사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포교의 꽃 피우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사 425명 탄생

신규 포교사 425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9월 2-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포교사 정기 연수 및 팔관제계 수계법회와 함께 신규 포교사 425명을 대상으로 품수식을 병행했다.

이날 법회는 포교원장 도영, 통도사 총무국장 혜봉 스님을 비롯 전국 포교사 17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도영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바로 여러분이 핵심신도가 되고 또 핵심신도를 길러내 포교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홍 포교사단 단장은 “포교가 바로 우리 생활이자 삶이듯이

지계 실천 또한 우리의 생활이자 삶이 될 수도도록 늘 깨어있는 불자로 포교 현장에 임하자”고 말했다.

이날 서울 경기 자원봉사2팀 이은자, 대구 경북 환경팀 박성경, 부산 경남포 교도소봉사팀 박진걸 포교사가 포교사단 총재상을 수상했으며 부산경남 청년대학팀 이인복 포교사 등이 포교사단장상을 받았다.

또한 포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동해온 3명의 포교사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이 부여됐다.

특히 대학생불교연합회의 전신인 학사불자회를 창립한 후 현재까지 포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불련 출신 24명에게 명예포교사증이 수여됐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국보 지정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 반출된 지 9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7일 국보지정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일본에서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을 <조선왕조실록(1973.12.30 국보 제151호로 지정)>에 추가로 국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이로써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 1천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 등 모두 2천77책에서 2천124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열린 국보지정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대산사고본 47책을 당분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관리토록 결정했으며, 관리단체 선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용주사 인근 골프장 공사 중단

화성 용주사 문화재보호구역내 남수원골프장의 연습장 증축(본지 593호 3면 기사 참조)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9월 2일 공사를 중지했다.

박병영 기자

화성 용주사 승무제 연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가 9월 23일 제4회 승무제를 연다.

조지훈 시인의 ‘승무’가 탄생한 무대인 용주사는 이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 예능보유자인 송악 김복련 선생을 초청해 ‘승무’의 탄생배경과 시 해설을 곁들여 나비, 바라춤을 선보인다.

또 어르신 3000여명을 초청해 경내에서 장수노인을 공경하는 백수연(白壽宴)과 산사음악회 등을 열 계획이다. (031) 369-2062

김원우 기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제2회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9월 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선불교도연맹 등 220여명의 불자들은 공동 발원문을 채택하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애국애족의 3대 공조를 실천하며, 통일을 앞당기는데 불교도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봉은사 부주지 명공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남북 불교도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민족대화합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북한인권법’ 주제 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은 ‘북한인권법, 인권철학이 있는가’를 주제로 9월 20일 오후 5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06 불교평화생명포럼을 개최한다.

법제는 서보희 前 국가인권위 위원과 조성렬 고려대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교수, 노귀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광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승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병영 기자

목탁소리

통도사(通度寺). 천하의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으로 영축산 통도사의 편액을 볼 때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한다. 요사이 어른을 잃은 불자종가(佛之宗家)의 스님들은 도(道)로 통하는 길을 잃어버린 듯하다.

방장 월하 스님(조계종 제9대 종장)이 2003년 12월 원적에 든 이후 통도사는 예전 모습이 아니다. 2005년부터 무려 6번이나 후임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를 열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없다.

총림법에 따라 주지를 지명하도록 되어있는 방장 부재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기가 만료된 현문 스님에게 네 번이나 주지직무대행 임명장을 끊어주었다. 유례가 없는

다섯 번째 직무대행을 임명한 9월 5일,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새 주지 직무대행 지은 스님에게 언제까지 총무원이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11월 정기 중앙총회 이전까지 새 방장추보를 추대 못하면 통도사는 총무원장 직권으로 ‘총림해제

등 이들도 외우기 힘든 여러 단계들이 3년여 동안 현문 스님 중심의 통도사 집행부와 힘겨투기를 하는 동안 양쪽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삼보사찰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대표급 사찰인 통도사가 방장이나 주지 자리가 계속 공석이고, 어두

‘佛之宗家’ 가풍 회복할 날은 언제?

건인의’ 상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전한 것이다. 비록 지은 스님이 현문 스님 주지 시절 부주지를 맡았었지만 새롭게 총무소 7시 국장 인선을 단행하고 총림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돌입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지금까지 ‘짧은승가회’ ‘통도사 화합모임’ ‘영축총림비상대책위’

운 발길을 해매듯 ‘도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산문안 800여 대중이 ‘구하-경봉 문중’을 놓고 갈라져 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세속으로 고스란히 전달 될 때마다 불자들 마음도 큰 상처를 입었다. 한국불교

를 대표하는 불보종찰의 명제가 지금처럼 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 더욱이 8월에겐 중앙총회 내 금강회 보림회 소속 일부 스님들이 전·현직 주지의 비형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진정을 내고 수사를 촉구해 불자들을 더욱 우려케 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통도사가 하루라도 빨리 통도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가풍을 되찾기를 학습고대하고 있다.

‘지도무난 율령간택(至道無難 唯謙謙擇)·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다만 가리고 고르는 길을 그만두면 된다.<신심명>.’ 길을 잃고 헤매는 통도사를 보노라면 승찬 스님의 이 가르침이 유난히 떠오른다.

■ 조용수(취재부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2006 Buryeo Festival' (개산328년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held from September 22 to 24 at Buryeosa Temple. The ad features a cartoon fish character and lists various activities and performances for each day.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sponsors like KNN.